정교회주보

제2413호

2023.3.26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 소피아 성당(사진)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모넴바시아 도시에 있는 성당이다. 12세기에 안드로니코스 2세 황제에 의해 에게해를 바라볼 수 있는 바위산 정상에 돔을 얹은 십자가 형태의 비잔틴 양식으로 건립되어 성모님께 헌정되었다.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비잔틴 성당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사순절 제4주일
(성 요한 클리막스 수도자)
성 가브리엘 대천사 연관축일
성 스테파노스 증거자
(제8조 • 조과 복음 8)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 성 요한 클리막스 수도자 찬양송 ·· (비고정 축일 성가집) 46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 사도경 : 히브리 6,13~20 ····· 233
- 복음경 : 마르코 9,17~31 ····· 139
- 성모송 ····· 62

저를 밝혀주소서

지상의 비참함에서 물질을 초월하는 영적인 광채를 향해 오르신 경애하는 교부시여,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어 저를 밝혀주소서.

당신은 절제의 달콤함을 맛보셨고, 쾌락의 쓴맛을 거부하셨나이다. 경애하는 교부시여, 우리 마음을 꿀보다 더 달게 만들어 주소서.

덕의 정상을 향해 오르시고, 지상의 정념들을 멸시함으로써, 경애하는 교부시여, 당신은 당신의 양 떼들에게 구원의 달콤함이 되셨나이다.

당신은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말씀을 낳으셨나이다. 쇠약해진 저의 영혼을 치유하소서. 제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뜨리오디온 전례서'에서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재산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주님께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셨음은 복음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들의 병을 치료해주셨고, 아이들을 애정으로 쓰다듬어 주셨고, 당신 품에 따뜻이 안아주셨습니다. 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바로 이 어린아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초대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의 설립자 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어린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감수성을 보여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학교, 고아원, 수련 시설 등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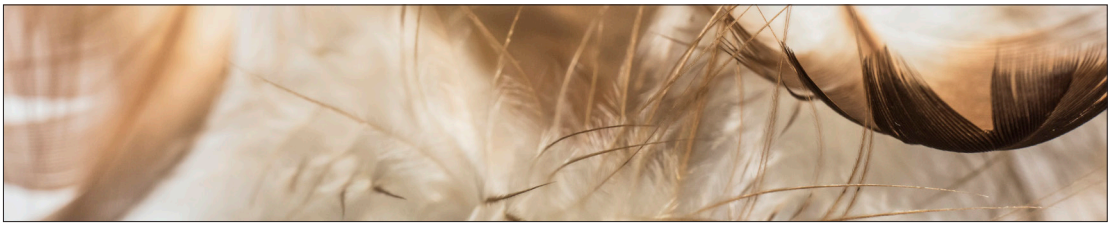
어린아이들의 영적, 지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열성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 당사자가 아이를 잘 보살피고 아이의 발전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성 사도 바울로께서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에페소 6,4 참조)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기른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해 좋은 말을 들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종교적 교육과 경험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것은 부모의 신앙 생활의 본보기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알려주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한두 가지 외국어를 배우고 음악과 미술, 운동, 춤 등 여러 가지 특기 활동을 배웁니다. 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일상에서 접하고, 집에는 옷과 장난감, 그밖에 물건들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정작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인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하고 단단한 기초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이가 인생에서 마주치게 될 어려움 앞에서 용감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아이들의 삶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도와줍시다. 아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며 살도록 돕는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재산을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큰 재산을 전해준 것에 대해 아이들은 평생 동안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천사들의 역할

아타나시아 봉사자



"주님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시편 34,7)

구약성경을 보면 시리아의 왕이 "내가 군사를 보내어 그를 사로잡으리라"고 말하면서 엘리사 예언자를 붙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예언자는 자신의 시종과 함께 있었습니다(열왕기 하 6,13). 시종은 군사들이 자신과 예언자를 체포하려고 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하고 예언자에게 물었습니다(15절). 그때 예언자는 두려워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 편이 저편보다 많다"고 일러주었습니다(16절). 우리를 붙잡으려고 몰려든 적들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들의 수가 더욱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예언자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17절) 그러자 하느님은 그 종의 눈을 열어서, 자신과 예언자를 둘러싸고서 불타오르는 칼을 든 채 지키고 서 있는 수많은 군대가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언자의 종은 곧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두려움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적들은 엘리사 예언자를 붙잡아 죽이려던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를 지키시려고 불말을 탄 천사들의 기마부대와 불병거부대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 옛날에만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의 시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초기 교부들의 시대만이 아니라 21세기인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은 언제나 같으시고, 그분께 지니고 있는 우리 신앙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에 걸쳐 서로 다르지 않고 언제나 같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히브리 13,8) 다만 한 가지, 우리 자신이 옛날의 신앙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필요합니다. 즉, 예언자의 종처럼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의 삶과 생활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찬예배와 다른 예배 안에서 되풀이해서 듣고 있는 기도문처럼, 완전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생명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갖 위험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수요일(3/29)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 **대 까논 예배**
* 금요일(3/31) 오후 6시
  성모 기립 찬양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

소 식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교회 이콘에 대한 강연

지난 18일(토), 한국교회사학회와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학술대회(주제: 동방정교회의 이콘과 기독교 예술을 찾아서)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가 주제 발표자로 초청받아 정교회의 이콘에 관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참석한 약 50명의 개신교 신학자는 강연을 관심 있게 듣고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 서울 성당 꽃 심기

오늘 점심식사 이후, 부활절 맞이 꽃 심기를 합니다. 모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

한번은 마카리오스 사부가 사막에서 수행하는 은수자의 거처에 병문안을 갔다.

은수자의 매우 소박한 거처 이곳저곳을 둘러본 그는 어디에도 음식의 흔적이 없음을 목격하고는 은수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형제여, 혹시 먹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병상에 있는 은수자는 대답하기를 주저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광야에서 무엇을 요청하겠는가. 하지만 사부가 계속해서 물어보자 마침내 밀가루 수프를 먹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어디서 밀가루를 구하겠는가?

마카리오스 사부는 병중에 있는 형제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밀가루를 구하러 80km나 떨어져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걸어서 다녀왔다.